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70년 역사 아동시설 새단장 “한여름에 찾아온 산타 같았어요”

2026. 9. 4.

CLS 홍용준 대표(앞줄 가운데)와 임직원, 음성향애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1952년부터 아이들 돌봐온 ‘음성향애원’, 현장과 소통하며 식사·수면·학습 공간 맞춤형 개선**
- **가전·가구 지원부터 로켓설치, 임직원 봉사까지 CLS, “현장 목소리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것”**

2026. 09. 04.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가 70년 넘게 충북 음성에서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온 아동양육시설의 생활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CLS는 충북 음성군 소재 아동양육시설 ‘음성향애원’을 찾아 가전·가구를 기부하고 생활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8월 26일 홍용준 CLS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은 식당 입구에 꽃을 심고 시설 곳곳을 페인트칠하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정비했다.

음성향애원은 1952년 설립된 충북 음성 지역의 아동양육시설로, 70여 년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영유아부터 초·중·고교생, 보호연장아동 등 총 34명이 생활하고 있다. CLS가 이번 지원에서 가장 먼저 살핀 것은 ‘아이들이 매일 쓰는 공간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였다.

CLS 홍용준 대표와 임직원들이 음성향애원에서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CLS는 지난 7월부터 음성향애원 측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필요한 물품을 확인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원 품목을 정하는 대신 식사와 수면, 학습, 휴식 등 아이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실제 교체와 보강이 필요한 가전·가구를 음성향애원 측과 함께 선정했다.

음성향애원 관계자는 “사전에 필요한 물품을 함께 논의하고 직접 시설을 둘러본 뒤 지원 품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느꼈다”며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지원을 부탁드려도 될까’ 싶었는데 오히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하나하나 채워줬다. 저희에게는 정말 ‘한여름에 찾아온 산타’ 같았다”고 말했다.

음성향애원 측이 이번 지원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한 곳 중 하나는 아이들이 매일 함께 식사하는 식당이었다. CLS는 6인용 식탁·의자 8세트와 4인용 식탁·의자 8세트 등 총 80석 규모의 식탁과 의자를 지원했다. 여러 아이들이 매일 한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는 아동양육시설의 특성상 식당은 이용 빈도가 높은 공동생활 공간이다.

아이들의 잠자리와 공부방도 함께 바뀌었다. CLS는 2층 침대 6개와 책상 6개, 학생용 의자 6개를 지원했다. 데스크톱 PC 5대는 아이들이 학습과 정보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휴게용 의자 4개와 스마트TV 1대는 함께 쉬고 소통하는 공용공간에 마련했다. 여름과 겨울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벽걸이 냉난방기 1대와 스탠드 냉난방기 2대도 지원했다. 무선청소기 3대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생활가전도 함께 전달했다.

CLS 홍용준 대표(왼쪽)와 음성향애원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쿠팡의 '로켓설치'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스마트TV, 침대, 식탁·의자, 냉난방기 등 주요 가전·가구는 전문 인력이 직접 배송부터 설치까지 완료해 시설의 운영 부담을 덜고 활용 편의성을 높였다. 로켓설치는 설치가 필요한 상품을 전문기사가 배송부터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설에서 요청한 환경 개선 작업에는 CLS 임직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CLS 임직원들은 식당 입구 화단을 정비하고 노후 공간을 새롭게 페인트칠 하는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평소 서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도 이날 충북 음성까지 100km 넘는 거리를 이동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음성향애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봉사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서울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직접 찾아와 물품 지원과 봉사를 함께 진행한 경우는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CLS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CLS의 물류 인프라와 로켓설치 역량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